

# '장의염불'로 남 위한 기도실천



신행연장

조계종 포교사단 서영부 거사

이름 서영부. 나이 61세. 학력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3학기 재학중. 직업 대정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특기사항 조계종 포교사. 활동 조계종 포교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 경기 포교지단 장의염불 1팀장. 조계사 거사법회 의식법등장. 장례회망 불교실버타운 건립.

19일 일정. 오전 6시 부천 소사구 집에서 1시간 동안의 기도를 마친 후 영등포 회사에 도착. 주요서류 결재. 오후 1시 견지동 포교사단 도착. 각종 기획 작성 및 포교사단 회의. 오후 2시 연화회에서 불교의식 강의. 오후 6시30분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수업.

서영부 거사의 개인신상과 활동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장의염불이고, 또 하나는 불교재가의식. 이것을 빼면 서 거사의 일상은 텅 빈 공간으로 남는다.

19일 오후 불교장례봉사단체인 연화회의 장의염불 봉사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의식 강의. "자 보세요. 목탁은 가슴에서 주먹하나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바르게, 깨끗한 마음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스스로 여법하면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여법한 것입니다..."

"여법". 서 거사는 "여법함"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활동의 준거로 삼고 있다. 불교재가의식과 장의염불에 뜻을 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집에서 틈틈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사업에 실패하고 설악산 봉정암에서 4박5일간 기도정진을 하면서 문득 남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장의염불이었습니다."

서 거사는 그 길로 연화회에서 장의염불 등 장례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

원봉사자로서 상을 당한 불자가정이나 병원 영안실, 화장장을 찾다니며 염불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불교계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가 거의 없을 때여서 서 거사의 이같은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서 거사는 여건만 되면 무조건 달려갔다.

서 거사는 96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말 그대로 여법한 장의염불을 하기 위해서는 포교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포교사단의 장의염불팀과 조계사 거사법회에서 장의염불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장의염불은 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발원입니다. 이처럼 진실로 남을 위한 기도가 또 어

## 무연고자 임종봉사 계획

## 조계사 거사회 의식법등장

## 불교실버타운 건립 '발원'

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종교에 관계없이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노인들에 대한 임종봉사도 할 생각입니다."

서 거사의 장의염불에 대한 이같은 신념은 느지막한 나이에 항화열의 불을 지켰고, 지난해 동국대 불교대학 장례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됐다.

서 거사의 또다른 관심분야는 불교재가의식. 조계사에서는 거사회 의식법등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통일되고 쉬운 의식을 고집하는 서 거사의 주장은 주위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서 거사는 곧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 전문화교육에 나설 생각이다.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포교사단 1주년 법회에서 집전을 하고 있는 서영부 거사.

서 거사는 매일 아침 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강화 보문사나 관음기도도량을 찾아가 칠야정진을 하고, 매년 연말에는 설악산 봉정암에서 4박5일 기도로 새해를 맞는다. 이렇게 기도정진해 온 지도 벌써 8년째.

서 거사는 아침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 "뜻밖의 도반들과 힘을 합쳐 불교실버타운을 건립하고 그 안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노스님들과 노인분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향하겠습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밖으로만 봄구경 말고 마음도 새봄맞이 하세요"



화암스님

양평 사나사 주지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합니다. 쌓인 눈을 매주한 두 번씩 마음까지 치우기에 너무도 힘겨운 겨울이었지만, 이렇게 쌓인 눈만큼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산사의 봄은 달력의 절기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산사에 봄이 왔다는 것은 자연의 소리만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계곡으로 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공룡 얼어있었던 그 곳에 말입니다.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이 흐르더니, 이제야 봄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사의 봄은 계곡의 물소리, 자연의 숨소리와

리지 않은 봄에 피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법화경〉 '오백재자수기'에는 '옷 속에 든 보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술에 만취되어 그 곳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친구가 급한 응무로 의출을 하게 되어, 남아 있는 친구의 옷 속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넣어 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옷과 먹을 것을 찾으러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에 우연히 가난한 친구를 만난 부자친구는 "어리석은 친구여, 그대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넣어 두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옷과 먹을 것을 구하려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이제 이 보물로써 필요한 것을 산다면, 항상 모자람이 없으리라."

## 찾고자 하는 모든 것 자기안에 다 있는 법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 물소리와 자연의 향기에 어느 스님의 개성이 생각나더군요.

하루 종일 봄을 찾다니도 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농두산 꼭대기 구름 덮인 곳까지

질신이 다 당도록 헤매었지만, 지쳐서 돌아와 보니 가득한 대화 향기에 미소를 짓네.

봄이 벌써 대화나무 가지에 가득히 차 있음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봄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봄이 있음을 모르고 밖으로만 봄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중생의 마음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려는 마음으로는 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봄을 찾고 밖으로만 봄을 찾아 나선다면 오히려 겨우내 풀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소중한 이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떠나기 전에는, 지쳐서 돌아오기 전에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별을 만들어 내고, 그 분별에 의해 밖으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당이나 극락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 돌리면 바로 여기가 천당이고 극락인 것을...

올 봄은 안으로 향해 떠나는 여행, 참나를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생활속의 불교

####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다

나는 '나'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남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로서 나를 위하고 나를 아낀다. 그러기에 남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사양하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는 '이기는 나', '으뜸가는 나'이다. 그런 '나'일 때 우리는 대체로 살맛을 느낀다. 나무로 비유하면 언제나 잎과 가지가 무성하고, 등치가 굵고, 뿌리가 튼튼해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모양 좋게 잘 자란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다. 대기와 태양과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나무는 생명체로서 그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대기·태양·토양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개별적인 존재일 수 없다. 사람도 그집에선 다르지 않다. 단 한 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고 살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영양공급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홀로 선 '달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이는 '열려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관계는 생명체와 자연 사이에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덕분에 잘 지내고 잘 살아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어찌 저 혼자 잘났다고 하랴. 땀 한 쪽만 나뉘 주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거나 나를 살리거나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어찌 은혜를 모른다 하랴. 어찌 겸허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앞에서 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생명은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이것이 순리요 자연의 법칙이자 질서이다. 龍眼

### 판매품

- 元白 (한방화장품)
- POINT 24 (비만해소)
- 元白 (한방비누)
- 원백 (맛사지제)

## 전국지사

# 고전불가비법

- 불자로서 대규모로 사업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개인사업 하실분
- 현 유사업종에 종사 하시는분

### 개발품

- 般若 (두뇌개발)
- 감로화정 (당뇨)
- 太平水 (숙취해소)
- 清心精 (기도용)

대한불교 太聖宗 총무원  
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華林寺**

대구 북구 읍내동 801번지(2F)  
TEL : 053)322-8377(대표)  
322-8302-3  
FAX : 053)322-8307

복지마을 **華林園**  
주식회사 **일광한방**

※ 본사업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화림원·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건립의 재정으로 쓰여 집니다. ※